

감독님 부활절 설교

부활의 사람들이여, 목소리를 높여라

요한복음 20:1-18

2020년 4월 12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텅 빈 가슴과 우리의 영적인 싸움, 최근 우리의 삶의 불확실함을 아십니다.

주 예수여, 오셔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곳에 임하시어 말씀 하소서.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 주님,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나눌 때, 제가 개인적으로 비옵는 것은, 나를 통해서이든지, 비록 내가 그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말씀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년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부활절 스토리는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경외로움과 영적으로 고무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꿈이 한 순간에 내던져졌다가, 그 다음 순간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의심과 회의가,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목격했을 때, 새로워진 믿음으로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에 일어납니다:

- 짓밟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것을 의미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었던 다락방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고, 도마는 믿었습니다.

- 그 후,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었으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흥미로운 것은 몇 세기에 걸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의 믿음을 지켜오고 후대에 전달해 오고 있지만, 이 시대에 목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며, 어떻게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부활을 사실로 받아드리는 것인가 뿐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은,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우리는 상징, 느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나는 이 고난주간과 교회에 가는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족식이 있었던 성목요일에 나는 함께 예배드리고, 최후의 만찬과 제자들의 배반의 이야기를 나눈것을 기억합니다. 몇 년 동안, "살아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교회의 성극에 출연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면, 교회의 장식을 전부 떼어서, 빛에서 암흑으로 변화 시켰습니다.

나는 성금요일 예배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십자가에 못박고, 어두운 느낌의 찬송가를 부르고, 사람들에게 각자 영혼의 깊은 곳으로 가 보고, 어떻게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 했는가 하는 텅 빈 느낌을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활 주일 썬라이즈 새벽예배를 기억합니다. 쌀쌀한 봄날 새벽에 찬송하며 기도문을 읽으며 해가 뜨기를 기다려, 아침 내내 부활절이 오는 것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나는 내가 첫번째로 시무한 교회를 기억합니다. 켈 크룩 가정이 썬라이즈 예배가 끝난 후 모든 교인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나는 그때의 페이스트리, 팬케익과 후레쉬 쏘시지의 맛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부활 주일 예배! 흰색 스톨을 두르고, 성가대와 같이 줄서서 입장하면서 교회의 힘찬 찬송을 부르며, 모든 교인들이 새옷을 장만하여 입고 온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백합-오, 그 백합꽃의 달콤한 향기!

이 사순절에서 부활절에 이르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상징물과 찬양과 향기와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이러한 느낌에 의존해 왔고, 그러한 기억을 기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순절은 괴상했습니다. 가장 평소와 판이하게 다른 고난주간 입니다. 장엄하다 할 수 없는 부활 주일 입니다.

우리에게 이 절기는 시험의 계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날은 더욱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초래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불확실한 때를 헤쳐나가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주지 시키는 그러한 때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기가 어찌나 쉬운지요. 그러나 사정이 힘들어질 때, 이때야말로 우리들 믿음의 깊은 샘으로 내려가서,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괴상했습니다. 가장 평소와 판이하게 다른 고난 주간입니다. 장엄하다 할 수 없는 부활 주일입니다.

40일간 계속된 성금요일 같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 동안 너무나도 많은 어두움, 질병,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죽음의 아픔에 대해서 자극하거나 환기 시킬 예배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TV에서 환기 시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고뇌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괴상했습니다. 가장 평소와 판이하게 다른 고난 주간입니다. 장엄하다 할 수 없는 부활 주일입니다.

올해 그 백합의 달콤한 향기 만이라도 맡을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잠깐!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서 달콤한 향기가 나는지도. 아마도 우리 주변에 온통 부활의 상징이 있는지도. 아마도 우리 주변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도.

요즈음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입니다. 우리 및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성령이 움직이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은혜 입는 자가 됩니다.

- 나는 오늘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그들의 목숨을 내어 놓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의료진들에게서 봅니다.
- 나는 오늘날 예수님을, 환자에게 산소가 부족하지는 않은가 실재 없이 보살피는 응급실 간호사, 도움을 청하는 전화에 응답하는 경찰관과 소방관, 그리고 내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그로서리 가게에 충실히 나와 서 있는 종업원에게서 봅니다.
- 나는 오늘날 예수님을, 마당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있는 이웃들에게서 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줄이야.

- 나는 오늘날 예수님을, 개체 교회의 숨겨진, 홈레스 사역,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 예배, 그리고 조심스럽게 터치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많은 “하이 터치/하이테크” 사역에서 봅니다.

오늘,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백합화의 흰빛으로, 새로움의 느낌과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머리 돌려 보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수많은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 빛과 희망과 새로운 날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 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들의 믿음을 따라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의 달콤한 향기가 있는데, 누가 백합 냄새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연결 고리입니다: 믿음과 희망의 연결 고리는, 우리가 실제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친교와 사랑의 띠로 묶어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섬깁니다, 그 분은 오늘 이 세상에 함께 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이 무어라 해도 그 분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비의 손길을 봅니다, 그분의 돌보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 분을 필요로 할 때에 그 분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들은 오늘 빈 무덤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희생이 부활하심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희생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에 견줄만한 것이 없습니다.

몇 년 전, 어떤 커플이 영국 런던에 있는 웅장한 성바로로 성당에 갔습니다. 관광 코스의 일부로, 안내자가 세계 2 차 대전 중 런던을 폭격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내자는 관광객에게, 그 폭격 당시 자신이 청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온 런던이 전부 불타오르는 것 같았던 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불길과 연기 밖에 볼 수 없었다고 감정에 휩싸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영원히 파괴된다고 느껴서, 온 가족이 울었다고 말하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그 커플에게, 가벼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 바람이 기적으로 연기를 잠재웠다고 했습니다. 안내자는 말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를 보았습니다. 연기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성바로로 성당에 아직도 서 있는 금빛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때를 지나게 해 주실, 나치의 스와스티카 보다 강력한 권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 나의 친구이며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평생 동안 한번도 격어 본 적이 없는 크기의 어두움과 공포, 어려움과 고통, 고난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겁나고, 어둡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주일에, 가벼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놀리고 걱정되는 스피릿에서 부터 위를 올려다 보십시오. 아직도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실것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세상의 어느것 보다도 강력한 권능이 있음을 아십시오!

올해는 백합도 없고 거창한 입장 행렬도 없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찬 마음의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준비합니다.

이번 주 초에 로마가톨릭 뉴욕 대주교인 티모시 돌란 추기경과 통화했습니다. 그 대화 중, 돌란 추기경이, 나도 한번 설교에 사용 한 적이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950 년대, 뉴욕에서 큰 파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석자 중에, 대 배우 리차드 버튼과 대 설교자 폴톤 쉬인 감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벤트의 끝 부분에 주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참석자 중에 세계에서 최고의 연사가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는 버튼과 쉬인 두 사람 에게 시편 23 편을 읽어달라고 했다. 이 두 사람은 동의했다. 리차드 버튼이 멋진 목소리로 23 편을 읽었고, 청중을 압도했다. 폴톤 쉬인 감독이 뒤를 이었고, 그의 웅변술로 청중은 홀린 듯했다. 두 사람이 끝내고 나서, 주최자는 이렇게 말했다, “낭독 하시는 것을 보니, 버튼씨는 시편을 잘 아시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쉬인 감독님, 읽으시는것을 보니 감독님은 목자를 아시는 것이 명백합니다.”라고.

여러분은 목자를 아십니까? 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역사적인 부활절 기념일로만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증거되는 생명과 부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부활 절기의 멋진 말씀들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 하셨네”의 알렐루야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네! 호산나 외치세! 이 날을 경축하라” 혹은 “그가 무덤에서 오르셨나?”의 드라마틱한 가사.

이러한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한 찬송들을 대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몇 년 전, 1979 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윌리엄 M. 제임스 목사님이 우리 찬송가에도 실린 찬송가를 썼습니다. 빌 제임스는 미시시피 태생으로, 할렘과 브롱스에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커뮤니티 개발 에 힘썼고, 뉴욕시의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멘토였습니다. 빈곤과 인종 차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었습니다.

“부활의 사람들이여 목소리를 높여라”는 찬송의 가사를 쓰셨습니다. 이 찬송은 부활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대신, 부활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주위에, 우리 안에 있음을 환기 시켜줍니다.

*부활의 사람들이여. 목소리를 높여라, 천상의 소리가 땅 위에 울리도록. 그리스도가 하늘의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천상의 음악이여 울려 퍼져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의 사람들이여, 노래하자.*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못한다.*

*우리의 주님이 권능 주시어 모든 적을 이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제 우리는 승리를 향해 간다.*

*매일 매일이 우리에게서 부활절, 부활의 노래로. 문제가 있을 때는 더욱 빨리 하나님께로, 잘못된 것을 옳게 고치시는 분.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에 계신 분의 권능을 보라.*

이번 씨즌에 백합은 한 송이도 필요없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향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